

제 2 회 토질공학 강습회를 마치고

洪 性 完*1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4일간 “얕은 기초(지지력과 침하)”라는 주제로 연세대 공학관에서 있었던 제 2회 토질공학 강습회는 강사님들과 수강자 여러분의 열기속에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강사님들이 교재원고를 때 맞추어 작성해 주셔서 교재를 책자의 형태로 만들 수 있었기에 모두들 기뻐하였습니다. 앞으로 “地盤工學시리즈”로 학회에서 발간할 계획입니다. 강습회가 끝난 후 알렌기념관에서 있었던 소연에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 정담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강습회는 김상규 회장의 과정소개와 학회의 계획에 대한 말씀에 이어 여덟분 강사님들이 매일 일곱시간씩 강의를 하셨으므로 수강자의 입장에서는 벅차고 점심시간도 너무 짧지 않았을까 하고 우려했으나 모두 진지한 태도와 열의를 보여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수강료에 회원할인제를 도입하여 할인금액이 정회원의 일년회비와 같도록 하였는데 총 63명의 수강자중 39명이 할인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수강자의 소속을 분류해 보면 엔지니어링社에서 31명, 시공회사에서 19명, 公社에서 9명, 大學에서 3명, 公務員 1명으로 나타나 원래 학회가 우리 業界를 위한 업무의 일환으로 본 강습회를 추진했던 의도에 부합되었습니다.

강습회 계획을 논의할 때 이사회에서 결정할 대로 수강시간 10시간당 1학점씩의 이수학점을 수료증에 표기하기로 하여 제 1회 강습회 수료자에게는 3학점, 제 2회 강습회 수료자에게는 2.6학점씩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이수학점은

곧 1, 2회 수강자의 기관장에게 본 학회 회장명의의 서한을 보내 통보하여 드리고 앞으로 계속 기록을 유지할 생각입니다. 외국에서와 같이 승진요건으로 고려되었으면 하는 것이 학회의 바램입니다.

수강자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수강일수, 1일 수강시간 및 강의내용의 수준이 모두 적정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으나 강의방법은 보다 많은 사례와 예제를 포함시키고 교재내용에는 보다 많은 참고자료를 포함시켰으면 하는 요청이 가장 많았습니다.

가장 도움이 되었던 강의의 강사 두 분을 지적해 달라는 설문에는 이인모 교수와 전준수 전무, 가장 충실히 준비, 제시된 강의의 강사 두 분으로는 이인모 교수와 양현승 부사장께서 선정되었습니다.

세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즉 제 3회 강습회부터 12회까지 계획된 주제 10개를 놓고 우선 순위를 지적해 달라는 설문에 대하여는 제 4회로 계획된 “깊은 기초의 설계와 시공”과 제 5회로 계획된 “연약지반 안정처리공법”이 서로 바뀐 순위로 나타났으며 다른 주제들은 계획된 순서대로 나타났습니다.

제 3회때는 “굴착 및 흙막이 공법”을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감기에 걸린 채 추운데서 수고하신 강현옥씨, 교재발간과 소연준비에 애쓰신 민국장님, 학회와 연세대, 연구원 사이를 오가며 온갖 궂은 일을 다 해 주신 李明煥 博士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저희 학회가 모든 회원들의 열의속에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1 정회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본학회 계속교육담당이사